

서로 돕는 주민공동체를 만들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은 아산재단의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해 복지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이대복지관의 권소라 과장(계단 맨앞줄 왼쪽), 박선영 부장(계단 맨윗줄 왼쪽), 이지은 과장(계단 맨윗줄 오른쪽)과 직원들.

2022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구청의 조사 결과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았고 주변과도 소통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이하 이대복지관) 권소라 가치성장팀 과장은 “이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가진 이들을 주목하지는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말한다.

“서대문구는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침 아산재단에서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바로 참여했습니다.”

주민 공동체에서 그 답을 찾다

이대복지관은 1956년 설립돼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중에서도 지역주민이 스스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이웃들을 돕도록 지역사회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선영 사업기획부장은 “우리 복지관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사회적 위기상황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즉 예방에 치중했다면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민공동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신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안전



사례상담TF팀 이지은 과장(오른쪽)이 직원과 의논하고 있다.

망 구축 프로젝트 ‘사람을 잇는 마을, 스마일 굴레방’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굴레방’은 북아현동의 지명으로, 달구지를 끄는 소가 굴레를 벗는 곳이라 해서 붙은 이름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들을 찾아내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다. 이대복지관은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리더 모임을 만들어 인식개선 교육을 시작했다. 이전부터 복지관을 이용하며 이대복지관의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해 온 주민들이 주요 리더가 됐다. 복지관 이용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있어 조언을 구하고, 주민들을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냈다.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례 발굴 강화

현재 이대복지관이 발굴,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25건에 이른다. 사례상담TF팀 이지은 과장은 “청소년부터 장년, 노인 등 연령대도 다양하고 사연도 많다”고 말한다. 자살을 시도해서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한 한 청소년은 퇴원 후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웠고, 동주민센터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즉각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대복지관은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주일에 한 번씩 면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나갔다. 세심한 배려에 해당 청소년은 장래의 꿈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열었고, 자격증 필기시험에 응시해 만점을 받으며 꿈을 향해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이대복지관은 새로운 참여자 발굴과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이 공인중개사연합회와 참여자 발굴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60년을 한 지역에 거주하며 공인중개사로 일해 온 주민리더 민금자 씨가 출발점이 됐다. “이전에는 행동이나 옷차림이 이상한 주민이 있으면 피했어. 그런데 이제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됐어.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한 일이니 주변에도 같이 하자고 많이 알리고 있어요.” 민금자 씨는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 공인중개사 모임에서 스마일 굴레방 사업을 소개했고, 그 덕분에 참여자 발굴 지원 협약까지 체결하게 됐다. 이대복지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과도 협약 체결을 고려하고 있고, 아산재단 협력사업에 참여한 기관들과도 꾸준히 교류하며 의료적 지원 등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있다. 박선영 부장은 “한번 물꼬를 트니 파급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고시원 등 1인 가구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 편집부**



20여 명의 주민리더가 이대복지관이 매달 실시하는 주민참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